

주택연금 개편에 광주·전남 고령층 혜택 커진다

72세·4억원 기준 3%↑…1억 8000만원 미만 주택 우대폭 확대
취약 고령층 지원 강화로 광주·전남 가입자 노후소득 보완 기대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 기준 약 3% 늘어나고 우대 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 시가가 1억 8000만원 미만일 때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을 확대하는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국 중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광주·전남 지역 가입자에게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억 8000만원 미만 주택에 대한 우대 폭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이 낮은 중소형 주택 보유 고령층이 많은 광주·전남지역의 특성상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완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하고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전반적으로 수령액이 확대된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 가격 4억원)를 기준으로 월 수령액은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전체 가입 기간 기준으로는 약 849만원을 더 받게 된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는 우대 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 시가가 1억 8000만원 미만일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 1억 3000만원인 77세 가입자의 경우 우대 금액이 월 9만 3000원에서 12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 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우대형 주택연금이 적용된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다음달 1일부터 신규 가입 시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되고 초기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보증료 인하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 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게는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대한 일부 예외도 허용된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못할 때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담보 주택을 제삼자에게 임대 중이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가입을 희망하면 별도의 재무 상환 절차 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가구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 가입자 우대 방안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LH '농어촌 특성화고 AI 교육·장학 사업' 추진

해남공고 등 5개 학교…1억 7000만원 투입 지역간 교육 격차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농어촌 특성화고 AI 교육·장학 사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인공지능(AI)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사업에는 해남공업고·전북인공지능고·정주IT과학고·양산인공지능고·춘천한생고 등 AI·스마트 분야 전공을 운영 중인 특성화고 5곳이 선정됐다.

LH는 올 연말까지 1억 7000만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해 5개 학교, 450여명의 학생을 지원할 예

정이다. LH는 최근 5개 특성화고와 AI 교육·장학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각 학교에 AI 프로그래밍 기초 등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AI·로봇 교육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 구축, 장학생 선발·지원 등 협력하기로 했다.

박영남 LH 스마트주택기술처장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AI 교육을 제공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서둘러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 중과' 예고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52주 연속 오름세 이어져
광주·전남은 보합세 유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였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2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27%로 전주(0.31%)보다 0.04%p 낮아졌다. 서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5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우수한 신축·대단지·역 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며 서울 전반

의 상승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비강남권과 외곽 일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나며 지역별 운도 차가 커지는 분위기다.

관악구는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0.57%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북구(0.41%), 영등포구(0.41%), 강서구(0.40%), 성동구(0.36%), 구로구(0.34%)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강남 3구는 상승세가 둔화됐다. 서초구(0.21%)는 전주 대비 상승률이 0.06%p, 송파구(0.18%)는 0.13%p 축소됐고, 강남구(0.07%)는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 세 중과 우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절세 목적인 매물을 내놓은 점이 상승폭 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지역이 0.13%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인 수지구(0.59%), 구리시(0.53%), 안양 동안구(0.48%)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인천은 0.02% 올라 상승폭이 0.02%p 줄었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6%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5대 광역시와 8개 도가 각각 0.02% 올랐고, 세종시는 보합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9%로 전주보다 0.01%p 낮아졌으며, 광주와 전남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국부동산원, 2025년 연구개발투자 우수기관 선정

부동산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성과 창출 공로

한국부동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장관표창 통합시상식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투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연구개발투자 우수기관은 기관의 자율적인 투

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선정하는 것으로 한국부동산원 등 총 2개 공공기관이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부동산 산업 전반에 접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칭 :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합계 (㎢)	유산지역 (㎢)	완충구역 (㎢)
총면적(㎢)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자구 생물 다양성이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펄갯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새들의 휴식처인 사하와 암반서식처

갯벌 위에 출수하는 무희, 사취

암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흥도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드는 특이직체

모래·자갈 선태형, 세상에 일리지 않은 이하다음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현장!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칠새이동, 멱이활동, 서식굴, 꽁동어 사움, 엽낭개,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슬까지 7가지 컨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